

경차급 연비·중형급 실내공간...도로에 달라붙 듯 편안한 주행

6년만에 내놓은 기아차 '올 뉴 K3' 타 보니

'경차급 연비, 중형급 실내 공간'을 갖춘 차. 기아차가 6년 만에 내놓은 '올 뉴 K3'를 요약하자면 이렇다.

15.2km/ℓ (15인치 타이어 기준)의 '경차급' 연비는 준중형급 세단으로는 더없이 만족스럽다. 고속주행에선 묵직하고 단단한 안정감이 중형급 수준이다. 넉넉한 실내 공간에 있을 건 다 있다.

사전계약을 시작한 2주간(영업일 기준 7일) 계약대수가 6000대에 달한 '돌풍'을 일으킨 이유를 짐작할 만하다.

지난달 27일 출시된 '올 뉴 K3'를 타고 기아차 광주공장~담양 메타세쿼이아 길을 돌아봤다.

◇깔끔한 외관=풀체인지된 올 뉴 K3 외관은 우선, 도심 출퇴근용에 걸맞게 단순하면서도 적당한 세련미를 갖췄다. 기아차를 상징하는 호랑이코 형상의 그릴, 풀 LED(발광다이오드) 헤드램프에 X자형 주간주행등은 세련된 분위기를 풍겼다. 트렁크쪽도 화살 모양을 형상화한 에어로 라인(Arrow-line) LED 리어컴비레프트와 수평형 방향지시등을 적용, 역동감을 강화했다는 게 기아차 설명이다.

◇넓은 내부공간=문을 열고 탑승하면 생각보다 넓은 느낌을 갖게 된다. 올 뉴 K3는 길이·폭·높이가 4640×1800×1440mm로 기존 K3(길이 4560·폭 1780·높이 1435mm)에 견줘 더 길어졌고 넓어졌다. 그만큼 실내공간이 더 여유로워졌다. 평소 운전 습관대로 운전석 의자를 쭉 빼고 앉아도 뒷좌석 무릎공간이 불편하지 않았다.

실내는 깔끔하다. 돌출형 내비게이션과 공조장치 주변으로 다양한 기능의 버튼들이 위치해 주행 중에도 사용에 어려움이 없다. 대시보드 하단에 수

공인 연비는 15.2km/ℓ
고속주행 단단한 안정감
주행 노면 소음 거의 없어
전방 충돌방지 보조 장착

평으로 뺀 크롬 가니시는 공간을 좌우로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준다.

◇단단한 주행능력=우선, 연비 성능은 인정할 만하다. 새 파워트레인인 '스마트 스트림 G1.6' 가솔린엔진은 연비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톡톡히 했다. 올 뉴 K3의 공인 연비는 15.2km/ℓ (15인치 타이어 기준)지만 도심과 고속도로를 번갈아 주행해도 ℓ 당 17.2km가 나왔다.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를 시속 80~100km로 연비 주행을 하면 더 올라갈 것 같았다. 차량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급가속을 거듭한 점을 고려하면 연비는 구입할만한 메리트가 충분하다. 기아차측은 "기존 K3 모델보다 연비가 10% 이상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고속주행 안정성도 인상적이다. 대형급 만큼은 못하지만 120km로 달라도 도로에 '착' 깔려 질주하는 맛이 있다.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핸들도 안정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예코·스마트·컴포트 주행을 드라이브 모드 버튼으로 선택할 수 있다. 운전의 재미를 즐기 위해 스포츠 모드도 전환하려면 기어변속기를 왼쪽으로 꺾으면 바뀐다. 다만, 가속 페달을 밟은 뒤 차가 반응하는 시간이 다소 느려지고 나간다는 느낌은 달랐다.



지난 8일 담양 메타세쿼이아 길을 달리고 있는 '올 뉴 K3'.

(기아차 제공)

◇만족스러운 승차감=시동을 걸 때 '내연기관 차'라는 생각을 갖기 힘들 정도로 주행 전 정숙함을 유지한다. 고속 주행 시 승차감이 나쁘지 않다.

엔진 소리가 거슬리지 않았고, 주행 중 노면 소음도 조용한 편이었다. 고속 주행 시 차가 흔들리는 불안감이 없었고 바람이 차에 부딪지면서 나는 풍

침음은 참을만한 수준이다.

◇풍부한 편의사양과 안전장치=안전·편의사양도 다양하다. 앞차와 간격이 좁혀질 경우 차가 알아서 스스로 멈추는 '전방 충돌방지 보조(FCA)'를 기본 장착했고 운전자 주의 경고(DAW), 차로 이탈방지 보조(LKA), 후측방 충돌 경고(BCW) 등을 선

택·적용해 안전성을 크게 높였다. 후대전화 무선충전 시스템도 선택 사양으로 갖출 수 있다.

한편, 올 뉴 K3의 판매가격은 ▲트렌디 1590만원 ▲러셔리 1810만원 ▲프레스티지 2030만원 ▲노블레스 2220만원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자동차 번호판 내년 상반기부터 바뀐다

국토부 25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맨앞에 숫자·한글에 받침 추가

- 승용차 등록번호 체계
- 숫자 추가



- 한글 받침 추가



자동차 번호판 체계가 내년 상반기부터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까지 새로운 자동차 등록 번호판 개선안 마련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현행 자동차 번호 체계는 '2자리 숫자+한글+4자리 숫자'로 이뤄져 있어 2200만개의 번호를 표현할 수 있지만 자동차 증가로 신규 발급이 가능한 번호가 모두 소진되면서 차량발소 등으로 회수된 번호를 내주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매년 차량 80만대 정도가 새로 등록하는 것을 고려하면 약 4000만개의 번호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점을 감안,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연구기관과 사전조사를 벌여 현행 자동차 번호에서 숫자 1자리를 맨 앞에 추가하거나 한글에 받침을 추가하면 큰 혼란 없이 충분한 번호 용량 확

보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52가3108' 같은 현행 체계에서 '152가3108'이나 '52각3108' 같은 체계로 바꾸기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 숫자 1개를 맨 앞에 추가하는 경우 약 2억개의 번호를 확보할 수 있어 용량이 충분하고, 주차·단속 카메라의 판독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자리가 3자리로 변경되면서 '119', '112' 등 특수번호 부여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

상했다.

이 체계를 적용할 경우 국가 전산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공공부문에서만 40억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한글 받침을 추가하는 경우 'ㄱ', 'ㄴ', 'ㅇ' 등 3개만 받침으로 추가하더라도 6600만개의 번호를 확보할 수 있다. 공공부문에서 4억원 정도면 개편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 추산이다. 다만, 경찰청 단속 카메라를 받침이 모두 확인 가능한 수준으로 교체하려면 약 700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의견수렴에는 번호판에 유럽 등과 같이 국가상징문양·비표를 넣는 것에 대한 선호도와 번호판 글씨체에 대한 선호도도 조사한다. 국토부는 홈페이지와 SNS, 네이버 모바일 배너, 자동차 관련 공기업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으며 국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벤츠, 1월 이어 2월에도 수입차 판매량 1위

메르세데스-벤츠가 1월에 이어 2월에도 수입차 시장에서 판매량 1위를 차지했다. 전남지역 수입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2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달 새로 등록된 수입차는 모두 1만9928대로 1월(2만1075대)보다 5.4% 줄었다. 다만 지난해 같은 달(1만6212대)과 비교하면 22.9% 많다.

실 연휴와 영업일 수 부족으로 1월보다 감소했다는 게 한국수입자동차협회측 설명이다.

브랜드별로는 벤츠가 6192대를 팔아 2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고 BMW(6118대)·도요타(1235대)·렉서스(1020대)·랜드로버(752대)·포드(745대)·미니(640대)·볼보(456대)·제규어(456대) 등의 순이다.

벤츠와 BMW의 판매량은 같은 달 한국GM(5804대)과 르노삼성(5353대) 내수 실적보다 많다. 지역별로는 경기(4469대), 서울(3584대), 부산(2631대) 등으로 집계됐고 광주는 383대, 전남은 357대가 새로 등록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자율주행차 '아우디 A8' 국내 고속도 테스트 나선다

독일 폭스바겐그룹의 아우디가 제작한 자율주행차 '아우디 A8'이 국내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테스트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가 신청한 '아우디 A8'에 대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을 허가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외에서 개발된 자율주행차가 국내에서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우디는 이미 지난해 '레벨3' 단계의 자율주행이 가능한 '아우디 A8'을 모터쇼 등을 통해 선보인

바 있다. '레벨3'은 고속도로 등 일정 구역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이다. 차량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고속도로와 여러 차선이 있는 도로에서 시속 60km 이하로 달릴 때 '아우디 AI(인공지능) 트래픽 잼 피어럿'이 운전을 책임진다.

국토부는 이번 임시운행 허가를 내주면서 안전을 위해 고속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자율주행을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초대 화랑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공동 54-2)
동양화·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010-2681-3113

서울표구점

북구 중흥동269-14 (중흥3동주민센터 입구 맞은편)
병풍, 액자, 족자, 표구 일체
☎010-3633-2790

내담대구탕·찜

북구 문흥동 954-8번지
대구탕, 해물갈비찜, 아구찜, 전골
단체모임 환영
대표 한혜숙 ☎062)471-5050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식당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금강버티컬

버티컬, 커튼, 블라인드, 홀딩도어
콤비블스크린, 전동롤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롤스크린,
허니콤블라인드의 제작 및 시공
☎062)514-6118, 010-5627-6119

제주흑돼지 전문점 꽃담

동구 밤밭로 48-1 (법원 뒤편)
제주흑돼지 삼겹살
제주 오겹살 (영업시간 오후3시~)
☎062)233-9992

바른글씨교정원

북구 서암대로 186 성지빌딩 3층 전대전문사거리
약필글씨 책임교정원, 학원생 수시모집
교대, 사대, 임용반, 취업반, 감사반
원장 직접 개인지도
☎062)525-9933, 010-8703-3378

하안나라 운동화세탁

북구 우산동 614-10(구,북광주동기소 옆)
운동화·가방·이불
"2켤레부터 수거배달"
☎062)269-4450, 010-4607-5773

금복식당

동구 공동 55-2(카톨릭센터 뒤)
찜탕, 계절 생선매운탕 전문
대표 김용범 ☎062)236-3177

한솔도시락 서영대점

북구 운암동 885-35번지
모든 도시락 포장가능
단체도시락 주문 받습니다.
대표 김용경 ☎062)524-6078, 010-3152-0739

교원 빨간펜 남광주센터

최고의 교육전문가로 성장할수 있는
선생님을 모십니다.
통합독서지도사 kbs미디어
온라인 평생교육원 자격증 취득가능
☎010-3613-3145

청학철학원

북구우치로 39-1 (중흥신협옆2층)
작명, 사주, 운세, 궁합, 택일
시험, 승진, 사업, 재물, 직업
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
청학 서광호 ☎010-9866-2332

으뜸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일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 010-6338-5383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가득

동구 예술의길 31-16
동부고시학원 3층
뷔페백반 전문
대표 전옥희 ☎062)222-0589

무크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258호
세련된 디자인의 신상품 대량 입고
10%~40% 할인 (일부품목 제외)
☎062)370-9258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 권리분석
대표 전병양 ☎062)263-2223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예단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국수나무용봉점

북구 용봉동 1091-4번지 (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고전방

동구 공동34-4 (중양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